

이민성호, 호주 2-1 잡고 4강 한일전

AFC U-23 아시안컵

경기력 논란 딛고 '반전'

4강전 20일 오후 8시30분

물오른 '김상식호' 베트남

중국과 21일 0시30분 격돌

경기력 비판에 시달리던 이민성호가 호주를 물리치고 2026 아시아축구연맹(AFC) U-23(23세 이하) 아시안컵 준결승에 올랐다.

이민성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U-23 대표팀은 18일(한국시간)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의 킹 압둘라 스포츠 시티 훌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8강전에서 전반 백기온(부산)의 선제골과 후반 신민하(강원)의 헤더 결승골을 엮어 호주에 2-1로 이겼다.

조별리그에서 출전을 거듭한 끝에 다른 팀의 도움으로 겨우 조 2위에 올라 8강에 진출한 이민성호는 이날 처음으로 선제골을 넣고 승리까지 거두며 반전을 이뤄냈다.

한국의 준결승 상대는 '숙명의 상대' 일본이다.

한국과 일본은 20일 오후 8시30분 같은 곳에서 결승행을 다투다.

이 감독은 조별리그에서 쓴 4-4-2가 아닌 4-5-1 전열로 8강전에 임



4강 진출을 기뻐하는 한국 U-23 축구대표팀 선수들.

대한축구협회 제공

했다. 조별리그에서 한 번도 선발로 쓰지 않은 백기온을 최전방 원톱으로 세우는 등 선발 명단에도 큰 변화를 줬다.

호주의 빠른 윈쪽 윙 야야 두풀리의 매서운 뒷공간 침투에서 시작된 몇 차례 위기를 잘 넘긴 한국은 전반 21분 백기온과 이현용이 합작한 멋진 골로 선제 득점을 올렸다.

이현용이 하프라인 뒤에서 통패스를 올려주자 달려 나가던 백기온이 페널티아크 부근에서 오른발 발리로 마무리했고, 슈팅은 골키퍼를 넘겨 골대에 꽂혔다.

후반 시작과 함께 호주의 빠른

공격에 애를 먹던 한국은 후반 7분 동점골을 내주고 말았다.

오른쪽을 파고들던 제드 드루의 침투 패스를 받은 요바노비치가 골키퍼까지 제치고 오른쪽 사각에서 슈팅해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후반 32분 백기온 대신 정재상(대구)을 투입하며 전방에 변화를 줬으나 이민성호는 이후에도 좀처럼 공격의 활로를 찾지 못했다.

외려 후반 40분 후방에서 공을 빼앗겨 실점 위기를 자초하기도 했다.

한국은 세트피스로 승부를 봤다.

후반 43분 오른쪽에서 강성진이 올려준 코너킥을 신민하가 러닝 헤

더로 연결해 골망을 훔들었다.

한편 또 다른 4강 대진은 김상식 감독이 지휘하는 베트남과 첫 4강 진출에 성공한 중국으로 결정됐다.

중국은 17일 '난적' 우즈베키스탄과 8강전에서 120분 연장 혈투 끝에 0-0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한 뒤 승부차기에서 4-2로 이겨 극적으로 준결승 진출 티켓을 품었다.

앞서 17일 8강에서 아랍에미리트를 3-2로 꺾은 '김상식호' 베트남은 중국과 한국시간 21일 0시30분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의 프린스 압둘라 알 파이잘 스포츠 시티 스타디움에서 준결승을 펼친다.

연합뉴스

제주SK 두 번째 외인 네게바 임대 영입

양쪽 윙·공격형 미드필더 소화

최근 브라질 2부 99경기 출전

탄탄한 체격의 돌파형 플레이

세르지우 코스타 체제로 새롭게 출범한 제주SK FC가 2026시즌 두 번째 외국인 선수로 브라질 출신 오른쪽 측면 윙 포워드 에메르송 네게바(Emerson Negueba·26)를 임대 영입했다고 18일 밝혔다.

네게바는 최근 3년간 브라질 세리에B 무대에서 99경기에 출전해 5골 3도움을 기록했다.

네게바는 스피드를 활용한 공간 돌파와 침투가 뛰어나고 특히 열린 상황에서 175cm·80kg의 탄탄한 체격을 앞세워 저돌적으로 밀고 들어가는 드리블이 위협적이라고 제주SK는 평가했다.

또한 전술 변화에 따라 공격형 미드필더, 윈쪽 측면 윙 포워드 소화가 가능해 권창훈, 박창준과 함께 2026시즌 제주SK의 측면 공격력을 한층 업그레이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SK는 같은 브라질 출신이자 K리그 무대 첫 진출에도 맹활약을



에메르송 네게바. 제주SK FC 제공

펼치고 있는 간판 미드필더 이탈로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며 네게바의 빠른 팀 적응을 도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네게바는 구단을 통해 "항상 해외 무대에서 뛰는 것을 꿈꿔왔는데 제주SK가 그 기회를 줘서 정말 기쁘다"면서 "그동안 제주SK에서 브라질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보여줬다고 들었고 그 기대에 실력으로 부응하겠다"고 입단 소감을 전했다.

위영석기자 yswi1968@ihalla.com

SJA제주 최지안 풀뢰레 주니어국대 선발

국대선발전 연장 끝에 준우승

세이нт존스베리아카데미 제주(SJA 제주) 최지안이 전문선수들과 경쟁해 주니어 국가대표에 선발됐다.

최지안은 지난 11~13일 전북 익산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6년 대한펜싱협회 유소년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준우승했다.

최지안은 풀뢰레 16강전에서 윤준민(서울체육고등학교)을 15-2로 가볍게 승리했다. 이후 기세를 이어 김태민(경북체육고등학교)과 탄중현(신수중학교)을 차례로 제압하고 결승에 올랐다.

하지만 결승에서 이솔빈(서울체육고등학교)과 연장 접전 끝에 11-10으로 석패했지만 3위까지 주어지는 국가대표 선발과 세계유소년펜싱선수권 대회 출전 티켓을 거머쥐었다.



SJA제주 최지안.

최지안은 작년 10월 미국 솔트레이크에서 열린 'North American Cup'에서 17세 이하 국가대표로 선발 출전해 3위를 기록, 국내 선수 중 유일하게 입상했다.

최지안은 다음 달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아시아펜싱선수권과 4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세계유소년펜싱선수권대회에 참가한다.

위영석기자

'세계 최강' 안세영, 새해 2주 연속 금빛 스매시

인도오픈 2연패… 세계 2위 왕즈이 43분 만에 완파

한국 배드민턴 간판 안세영(삼성생명)이 2주 연속 금빛 스매시에 성공하며 '세계 최강' 다운 위용을 과시했다.

여자 단식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18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인도오픈 결승에서 세계랭킹 2위 왕즈이(중국)를 단 43분 만에 2-0(21-13, 21-11)으로 완파했다.

이로써 안세영은 지난해에 이어 이 대회 2연패를 달성함과 동시에 지난 11일 말레이시아오픈 우승에

이어 새해 들어 2주 연속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왕즈이는 최근 안세영과의 10차례 맞대결에서 전패하는 등 안세영 공포증을 극복하지 못한 채 다시 한번 무릎을 꿇었다.

이날 결승전 역시 안세영이 시종 일관 코트를 지배했다.

첫 게임 1-1 동점 상황에서 내리 6점을 쓸어 담으며 기선을 제압한 안세영은 경기 내내 주도권을 놓치지 않았다.

게임 막판 15-13, 2점 차로 일시

적으로 쫓겼으나 안세영은 곧바로 다시 6연속 득점을 몰아치며 그대로 가볍게 첫 게임을 가져왔다.

2게임에서도 반전은 없었다. 왕즈이는 안세영의 철벽 수비와 날카로운 공격에 가로막혀 단 한 차례의 반격 기회조차 잡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다가 10점 차로 패했다.

안세영은 지난해 단일 시즌 역대 최다승 타이기록(11승)과 단식 선수 역대 최고 승률(94.8%), 그리고 역대 최고 누적 상금액(100만3175 달러)을 갈아치우며 배드민턴 역사

를 새로 썼다.

연합뉴스



우승 확정 후 포효하는 안세영. 연합뉴스

수상 축상 법무부장관 표창



이종현

법무부장관 표창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법무부 소년보호위원회 제주소년원협의회
회장 한지섭 외 위원 일동

진상금 공군 준장



양경철
父: 양순봉·母: 강순녀

공군 준장 진급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봉성리 새마을회
봉성리 노인회

승진 축 서기관



김미선

서기관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친구 일동
(은경·경희·해숙·승희)

승진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장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삼촌 고모 일동